



Title	ワークショップ 異言語環境において日本近代小説を読む 太宰治『黄金風景』を例に : 韓国語
Author(s)	康, 盛国; 金, 侖姫
Citation	多言語翻訳 : 太宰治『黄金風景』. 2012, p. 57-65
Version Type	VoR
URL	https://hdl.handle.net/11094/32738
rights	
Note	

The University of Osaka Institutional Knowledge Archive : OUKA

<https://ir.library.osaka-u.ac.jp/>

The University of Osaka

太宰治「黄金風景」韓国語訳関連報告

翻訳者：^{カンソソクク}康盛国・^{キムユニ}金侖姫

I. 太宰治作品の翻訳状況

※下記は、『太宰治全集』所収の作品名を列举したもので、このうち韓国語訳があるものは四角で表した。

- 第1巻：「晩年」「葉」「**思い出**」「魚服記」「列車」「地球図」「猿ヶ島」「雀こ」「道化の華」「猿面冠者」「**逆行**」「彼は昔の彼ならず」「マロネスク」「玩具」「陰火」「めくら草紙」「**夕ス・ゲマイネ**」「雌に就いて」「虚構の春」「狂言の神」
- 第2巻：「創生記」「喝采」「二十世紀旗手」「あさましきもの」「**HUMAN LOST**」「**燈籠**」「満願」「姥捨」「**I can speak**」「**富嶽百景**」「**黄金風景**」「**女生徒**」「**懶惰の歌留多**」「**葉桜と魔笛**」「**愛と美について**」「読者に」「**秋風記**」「新樹の言葉」「花燭」「**愛と美について**」「火の鳥」
- 第3巻：「八十八夜」「座興に非ず」「美少女」「畜犬談」「ア、秋」「デカダン抗議」「おしゃれ童子」「**皮膚と心**」「春の盗賊」「俗天使」「**兄たち**」「鷗」「女人訓戒」「**女の決闘**」「駈込み訴え」「老(アルト)ハイデルベルヒ」「**誰も知らぬ**」「善蔵を思う」「**走れメロス**」「古典風」「盲人独笑」「乞食学生」「失敗園」「一灯」「リズム」
- 第4巻：「きりぎりす」「ろまん燈籠」「**東京八景**」「みみずく通信」「佐渡」「清貧譚」「服装に就いて」「令嬢アユ」「千代女」「新ハムレット」「風の便り」「**誰**」「**恥**」
- 第5巻：「新郎」「**十二月八日**」「律子と貞子」「**待つ**」「**水仙**」「**正義と微笑**」「小さいアルバム」「**花火**」「帰去来」「**故郷**」「**禁酒の心**」「黄村先生言行録」「花吹雪」「不審庵」
- 第6巻：「鉄面皮」「赤心」「右大臣実朝」「作家の手帖」「佳日」「散華」「雪の夜の話」「東京だより」「新釈諸国噺」「貧の意地」「大力」「猿塚」「人魚の海」「破産」「裸川」「義理」「女賊」「赤い太鼓」「粹人」「遊興戒」「吉野山」「竹青」
- 第7巻：「**津軽**」「**惜別**」「**お伽草紙**」「前書き」「瘤取り」「浦島さん」「カチカチ山」「舌切雀」
- 第8巻：「**パンドラの匣**」「薄明」「庭」「親という二字」「**嘘**」「**貨幣**」「やんぬる哉」「十五年間」「未帰還の友に」「苦悩の年鑑」「チャンス」「雀」「たずねびと」「男女同権」「親友交歓」「**トカトントン**」「メリイクリスマス」「ヴィヨンの妻」「冬の花火」「春の枯葉」
- 第9巻：「母」「父」「女神」「フォスフォレスセンス」「**朝**」「**斜陽**」「おさん」「犯人」「饗応夫人」「酒の追憶」「**美男子と煙草**」「眉山」「女類」「渡り鳥」「桜桃」「家庭の幸福」「**人間失格**」「**グッド・バイ**」

第10巻：「田舎者」「魚服記に就て」「小説 断崖の錯覚」「もの思う葦（その一）」「もの思う葦（その二）」「川端康成へ」「もの思う葦（その三）」「碧眼托鉢」「人物に就いて」「古典竜頭蛇尾」「悶悶日記」「走ラヌ名馬」「先生三人」「音に就いて」「檀君の近業について」「思案の敗北」「創作余談」「晩年」に就いて」「一日の労苦」「多頭蛇哲学」「答案落第」「緒方氏を殺した者」「一步前進二歩退却」「富士に就いて」「校長三代」「女人創造」「九月十月十一月」「春昼」「当選の日」「正直ノオト」「ラロシフコー」「人間キリスト記」その他」「市井喧争」「困惑の弁」「心の王者」「このごろ」「鬱屈禍」「酒ぎらい」「知らない人」「諸君の位置」「無趣味」「義務」「作家の像」「三月三十日」「国技館」「大恩は語らず」「自信の無さ」「六月十九日」「貪婪禍」「自作を語る」「砂子屋」「パウロの混乱」「文盲自嘲」「かすかな声」「弱者の糧」「男女川と羽左衛門」「五所川原」「青森」「容貌」「晩年」と「女生徒」」「私の著作集」「世界的」「私信」「或る忠告」「食通」「一問一答」「**無題**」「小照」「炎天汗談」「天狗」「わが愛好する言葉」「金銭の話」「横綱」「革財布」「惜別」の意図」「芸術ぎらい」「郷愁」「純真」「一つの約束」「春」「返事」「津軽地方とチエホフ」「政治家と家庭」「海」「同じ星」「新しい形の個人主義」「織田君の死」「**わが半生を語る**」「小志」「かくめい」「小説の面白さ」「徒党について」「黒石の人たち」「如是我聞」

→「人間失格」など、計42作品において韓国語訳が刊行されていることが確認された。
 →「黄金風景」は、『美男子と煙草—太宰治 国内未発表短編集』（洪ソンプル訳,2008）に収録されている。

II. 「黄金風景」（韓国語訳）の韓国人の受け止め方は、日本人のそれと違うだろうか。

※→理解においてさほど違いがないと考えられる。

1) 要因①：言語の類似性（語順など）

お巡りは、	なほも	楽しげに	笑ひながら	「小説を	お書きなさるん	それは	なかなか	出世です。」
순경은	여전히	즐겁다는듯이	웃으며,	“소설을	쓰신다니	그건	굉장한	출세지요.”

※「黄金風景」本文中

2) 要因②：文化の類似性—「^{シンモ}食母」の存在

※資料（東亜日報 1939年9月15日記事）参照

Ⅲ. 既存の「黄金風景」韓国語訳との比較

※既刊行の、洪ソンプル氏による訳→以下、「洪訳」と略。

康・金による新しい訳→以下、「康&金訳」と略。

1) 「洪訳」における間違い（と判断された箇所）が、「康&金訳」において修正されている場合

原文	私は、 <u>のろくさい</u> ことは嫌（きら）いで、それゆえ、 <u>のろくさい</u> 女中を殊（こと）にもいじめた。お慶は、 <u>のろくさい</u> 女中である。
洪訳	나는 <u>게으른</u> 일에는 질색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u>게으른</u> 식모를 특히 괴롭혔다. 오케이(お慶)는 <u>게으른</u> 식모였다.
康&金訳	나는 <u>느려터지는</u> 건 질색인지라, <u>느려터진</u> 식모를 특히나 괴롭혔다. 오케이(お慶)는 <u>느려터진</u> 식모다.

→洪訳の「게으른」は、「怠ける」という意味である。お慶は、行動は鈍いが、主人公に言われるとおりに、一日中、絵本の軍人をはさみで切り抜くなど、勤勉な態度を見せる。したがって、ただ、行動が鈍いことだけを意味する「느려터진」で訳したほうが妥当だろう。

原文	それから、三日たって、私が仕事のことよりも、金銭のことで思い悩み、うちにじっとして居れなくて、 <u>竹のステッキ</u> 持って、海へ出ようと、玄関の戸をがらがらあけたら、外に三人、浴衣（ゆかた）着た父と母と、赤い洋服着た女の子と、絵のように美しく並んで立っていた。
洪訳	그로부터 사흘이 지나, 나는 일보다도 돈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집에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하여 <u>대나무 지팡이를 짚고</u> 바다로 가려고 현관문을 ‘드르륵’ 열자, 밖에 세 명, 유카타를 입은 아버지와 어머니, 빨간 옷을 입은 여자 아이가 그림처럼 아름답게 나란히 서 있었다.
康&金訳	그로부터 사흘 후, 일보다도 돈 때문에 고민하다가 가만히 집에 있을 수가 없게 된 나는, 바다에라도 나가 보려고 <u>대나무 지팡이를 들고선</u> 현관 문을 드르륵 열었다. 그러자 밖에는 유카타를 입은 부부와 빨간 옷을 입은 여자아이가 그림처럼 아름답게 나란히 서 있었다.

→洪訳では、「竹のステッキをついて」と訳している。しかし、主人公は、「地団駄踏むような荒んだ歩きかた」とあるように、杖をつく必要はないと考えられる。康&金訳では「竹のステッキを持って」という原文をそのまま生かして訳した。

原文	竹のステッキで、 <u>海浜</u> の雑草を薙（な）ぎ払い薙ぎ払い、いちどもあとを振りかえらず、一步、一步、地団駄踏むような荒（すさ）んだ歩きかたで、とにかく海岸伝いに町の方へ、まっすぐに歩いた。
洪訳	대나무 지팡이로 <u>강가</u> 에 난 잡초들을 이리저리 훑어가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거친 걸음걸이로, 무조건 해안을 따라 읍내 쪽으로 똑바로 걸었다.

康&金訳	대나무 지팡이로 해변의 잡초를 이리저리 훑으며 한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한걸음 한걸음, 발을 동동 구르듯 거친 걸음으로 무턱대고 해변가를 따라 마을 쪽으로 똑바로 걸었다.
------	---

→洪訳の「강가」は「川沿い」である。康&金訳では「해변 (海浜)」と訳した。

2) 「洪訳」と「康&金訳」との間に翻訳の方針の違いが見られる箇所

原文	台所で、何もせずに、ただのっそりつつ立っている姿を、私はよく見かけたものであるが、子供心にも、うすみっともなく、妙に疝(かん)にさわって、おい、お慶、日は短いのだぞ、などと大人びた、いま思っても脊筋(せすじ)の寒くなるような非道の言葉を投げつけて、それで足りずに一度はお慶をよびつけ、私の絵本の観兵式の何百人となくうようよしている兵隊、馬に乗っている者もあり、旗持っている者もあり、銃担(にな)っている者もあり、そのひとりひとりの兵隊の形を鋏(はさみ)でもって切り抜かせ、不器用なお慶は、朝から昼飯も食わず日暮頃までかかって、やっと三十人くらい、それも大将の鬚(ひげ)を片方切り落したり、銃持つ兵隊の手を、熊(くま)の手みたいに恐ろしく大きく切り抜いたり、そうしていちいち私に怒鳴られ、夏のころであった、お慶は汗かきなので、切り抜かれた兵隊たちはみんな、お慶の手の汗で、びしょびしょ濡(ぬ)れて、私は遂(つい)に癩癩(かんしゃく)をおこし、お慶を蹴(け)った。
洪訳	부엌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을 나는 자주 보았으나 어린 마음에도 볼품이 없고 이상하게 마음에 거슬려 “야, 오케이, 하루는 짧다고.”라며 어른 흉내를 내며, 지금 생각해도 등줄기가 오싹해질 정도로 버릇없는 말을 던지고는, 그것도 모자라 한 번은 오케이를 불러들여 내 그림책에 실린, 몇 백 명이나 우글대는 사열식 군인들, 말을 타고 있는 자도 있고, 깃발을 들고 있는 자도, 총을 메고 있는 자도 있는데 그 한 명 한 명의 군인들 모양을 가위로 <u>오려내게 하여,</u> 손재주가 없는 오케이는 아침부터 점심도 굶은 채 저녁 무렵까지 간신히 서른 명 정도, 그것도 대장의 수영 한 쪽을 잘라버리고, 총을 맨 군인 손을 곰처럼 크게 잘라내고 그럴 때마다 <u>내게 꾸중을 들었으며,</u> 그 때는 여름이었는데 오케이는 땀을 많이 흘리기에 오려낸 군인들은 모두 오케이의 손에서 묻은 땀 때문에 축축해져, 나는 끝내 화가 치밀어 올라 오케이를 발로 걷어차다.
康&金訳	부엌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을 자주 보곤 했는데, 어린 마음에도 그 모습이 꼴사납고 이상하게 비위에 거슬려서 “야,오케이! 하루는 짧다구.”라고 어른같은,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u>건방진 말을 던졌다.</u> 그것도 모자라 한 번은 오케이를 시켜서 그림책에 실린 몇 백명이나 되는 우글거리는 군인들-- 말을 탄 사람도 있고 깃발을 든 사람도 있고 총을 맨 사람도 있는데-- 한 명 한 명을 가위로 <u>오려내게 했다.</u> 손재주가 없는 오케이가 아침부터 해가 저물 때까지 점심도 굶어가며 한 게 겨우 30명 정도로, 그것도 대장의 수영 한 쪽은 잘라내 버리고 총 든 군인의 손은 곰의 앞발처럼 크게 잘라내거나 해서 그 때마다 일일이 <u>내게 혼이 났다.</u> 여름 무렵이었는데 땀을 많이 흘리는 오케이가 잘라낸 군인들은 모두 오케이의 손에서 나온 땀 때문에 눅눅해져서 나는 결국 짜증을 내며 오케이를 발로 걷어 차고 말았다._

→原文では、延々と続く長文になっており、洪訳でもその文体を生かして、一つの文章として翻訳している。康&金訳では、読者の理解のために、傍線部において文章を切り、四つの文章で翻訳した。

原文	「親にさえ顔を踏まれたことはない。一生おぼえております」うめくような口調で、とぎれ、とぎれそうだったので、私は、流石（さすが）にいやな気がした。
洪訳	“부모한테도 <u>밟힌</u> 적이 없어요. 평생 안 잊겠습니다.” 울먹이면서 한 마디 한 마디 하기에 나는 정말 섬뜩했다.
康&金訳	“부모님한테도 얼굴을 <u>차인</u> 적은 없었는데...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라고 신음하는 듯 겨우 말을 이어가는 투가 몹시 불쾌하게 느껴졌다.

→洪訳の「밟힌」は「踏まれた」、康&金訳の「차인」は「蹴られた」という意味である。洪訳では、原文の「踏まれた」を直訳する方針をとったと考えられる。ところで、日本語の「踏む」が「足で突く。蹴る」という意味をも包含するのに対し（※日本国語大辞典参照）、韓国語の「밟다」は、「足で下のものを押さえる」という意味に限定される。従って、「蹴る」という意味の「차다」で訳したほうが妥当だと判断される。

東亞日報 1939 年 9 月 15 日記事 (「家庭」欄)

너머위해기른자식중에 똑똑한인물없어

너머위해기른자식중에
똑똑한인물없어
특히맛자식이벤벤티못한이유
자유를뺏지마세요

첫자식과 망내자식은 변벤티못하다는말을 항상듣게됩니다.이것도 일리가잇는말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본성은솔직해서 무엇이나어른들이하는일을 쫓아다니며 흥내내고싶어하고 귀찬케굴면서라도 어머니가 빨래를하면 빨래흥내를내고 바느질을하면 바느질한다고 어머니더러바느질감달라구성화같이합니다.

심부름도 제가먼저 한다구 야단이지요그러나 어머니는 자기일하는데와서 귀찬케구니까 일이잘안되는것만 생각하고저리가라구 야단을하면 아이들의자유를 뺏고 아이들의 본성을 잘살려서 무엇이하는이치를 잘가르치지안으며 가만히잇기 만 하는 아이를 양전한아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조선에서는 남자나여자에게 칭찬하는말이 양전하고점잔타는말을 합니다 양전하고점잔타는 말은 동(動)하지안는것을 표시하는것이니 성장중에잇는 아이들이 양전하고점잔타는 칭찬을 듣는다면이는 장내성없는 소망없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어리다구 아이들의 자유행동을 금지하고 어머니나하인이 전혀 -(일)에서 열까지보살펴주고 밥이라도 떠먹여줄것같이하니까아이의성장은 퇴보하는것밖에 없습니다. 방도잠 쓰고 싶어도 식모가 빼서서쓰고 이불을좀개켜도 어머니가 이게뭐냐고 하면서 빼서서개키고 하니까 아이들은 점점 자신을일해서 차라리 아무것도 아니하는것이상책이라는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케 생각하게되면 이아이는 벌써 진취성이없어지고 다른사람의 완전한소유물로제의사가없고 의견이없어서 인형과같이 지내게 됩니다.

이러는동안에 동생들이 생기면 저는 앓아서 입으로 말만하고 꿈쩍도아니하면서 동생들을부리기만하는 버릇이 생깁니다아이들은 저훈자걸어가는 힘이라든가, 연구하는지혜라든가생각하는 노력의필요가 없으면 지력이 성장하기는 고사하고 게름쟁이 못난이가 되는 것은 당연한일입니다.거기다가 첫아들이나 생기게 되면 세상에 이런귀한일은 없는것같아서 완집안이떠들고 워하다가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아들을나르면 이제는 그리귀한줄몰라 둘째셋째는 좀부리기도 하고 또아이가만허지니까 다일일이보살펴주기도힘들어 버려두니까 오히려저훈자의생활에 창작력이 생겨서 첫아이보다 훨씬똑똑한 아이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귀중한 첫아들이건 첫손자건 집안에서 보살필사람이 만컨말건
아이들이쁜사람을 부리는 습관을 기르지말것입니다. 저혼자 어찌할수없을때는 식모더러라도
집에서부리는 하인에게라도 좀해달라고 청하는식으로 해야합니다. 조선에서는 대체로
집안하인부리기를 혹독하게해서 주인과 식모는 한층떨어지는게급으로 생각하는데서
어른들사회에는 그런대로 통용될지모르나 아이들교육하는데는 여간 재미없는일이 아닙니다.
밥먹고도 밥상은 식모만내가는것으로 알기때문에 밥먹고 슬적 일어나버리고 제가자고난 이불도
식모가 개켜야하는줄 알기때문에 몸만 쏙 빠져나오고 마는 일은 아무리 관대하게 본대도
교육상재미적습니다. 어머니가 하인을 너머경멸하게 취급하니까 아이들도어린애면서
나이만히먹은 식모를 꾸짖고 못살게 구는일이 잇습니다.

적어도 내집에와서 보수를받으며 일은할지언정 인간으로서대접해야할것입니다.
어머니가밥먹는밥상이라도 내가 두도록 하려면 할머니가 옆에서 “그러케하면 식모버릇이
없어져서 못쓴다”하시며 가만두게 하는 일이 없지 안흔가요? 송릉쫘은 아이들이 갖다먹게하는
것이 조치안할까요 잠시잇는 식모버릇 가르치려다가 귀중한 내집자녀의 버릇이 나빠진다면
어떤편이 더 중대한 것일까요.

식모가 주인의 친절을 무시하고 버릇이 나빠지는 것은 속상해서 내보내면 되지마는
내집자녀가 나쁜버릇을 갖게되면 이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것이니까 식모의 버릇을 중하게
알지말고 내집자녀로 하여금 슬아손이 되지 안토록 또 남을 경멸하는 버릇이 없도록
길르십시오.

《傍線部の日本語訳》

○タイトル：あまりにもおだてて育てた子供の中に、賢い人物はない。

○本文：

(前略) ですから、いくら大事な長男だろうが、初孫だろうが、家に世話人が多かろうが少なかろうが、子供たちに、人に仕事をさせる習慣を身につけさせないように気をつけましょう。自分一人ではどうしてもできないことがあるときに初めて「食母」か下人に「お願いします」と頼む形にするべきです。

朝鮮では大体、家の下人への待遇をひどくし、主人と「食母」はかなり離れている階級と考えます。もちろん、大人の社会ではそれなりに通用するかも知れませんが、子供を教育する上では、かなり悪影響を及ぼします。ご飯を食べ終わっても、テーブルを持ち運んで片付けることは「食母」だけの仕事と考えてそのまま立ち去ったり、自分が敷いて寝た布団も、当然「食母」が畳むものだと考えて放っておいたりといったことは、いくら寛大にみようとしても、教育上よくありません。お母さんが下人を軽蔑するから、子供たちも、自分よりずっと年上の「食母」を叱ったりいじめたりすることがあります。

すくなくとも、自分の家に雇って報酬を与えて仕事をさせるとしても、同じ人間として接するべきです。お母さんの食事の用意を子供自身がしようとしたら、お祖母さんがそばで、「そうしたら、「食母」の行儀が悪くなるよ」と言って、止めることはないでしょうか。スニユン（発表者注：食後に飲むお茶で、おこげにお湯を加えたもの）ぐらいいは子供たちが自分で持ってきて飲むようにするのがいい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しばらくの間しかない「食母」の行儀をよくするために、大切な自分の子供の行儀がわるくなるのであれば、どちらがより重大なことでしょうか。

「食母」が主人の親切を無視し、行儀が悪くなったら、追い出してしまえば済むことですが、自分の子供の行儀が悪くなったら、この問題はどやうやって解決できるのでしょうか。「食母」の行儀を気にする前に、自分の子供が人を軽蔑する習慣を身につけないように育てましょう。

號一十九百四千大第
（日 報 韓）

家庭

너머우해기른자식중에 또또한이름없어

특히맛자식이벤치못한이유
자유를 빼앗지 마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다. 어머니들이 자식을 기르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식의 인격을 기르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자식을 기르는 것이 단순히 밥을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처럼 여겨지고, 부모의 뜻을 거역하면 꾸짖어지고 때리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자식은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가? 그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부모의 억압을 받으면서 자라나고 있다. 자식을 기르는 부모들은 자식을 기르는데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거나, 혹은 알고도 지키지 않는다. 자식을 기르는 부모들은 자식을 기르는데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거나, 혹은 알고도 지키지 않는다. 자식을 기르는 부모들은 자식을 기르는데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거나, 혹은 알고도 지키지 않는다.

京城園藝學校主催로 家庭 婦人園藝講座

本社東京支部後援下에
九月二十三日(부일) 7日開

본 강좌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하여, 특히 어머니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설된 것이다. 이 강좌에서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하여, 특히 어머니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설된 것이다. 이 강좌에서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하여, 특히 어머니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설된 것이다.

볼도물도가리안그 유단적인 파란여 구주대전매일사대가 이번전쟁에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다. 어머니들이 자식을 기르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식의 인격을 기르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자식을 기르는 것이 단순히 밥을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처럼 여겨지고, 부모의 뜻을 거역하면 꾸짖어지고 때리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자식은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가? 그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부모의 억압을 받으면서 자라나고 있다. 자식을 기르는 부모들은 자식을 기르는데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거나, 혹은 알고도 지키지 않는다. 자식을 기르는 부모들은 자식을 기르는데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거나, 혹은 알고도 지키지 않는다.

異言語環境において日本近代小説を読む
太宰治『黄金風景』を例に

韓国語



廣 盛国 (KANG Sungkook) 金 俞姫 (KIM Yoonhee)

単行本(全27冊42作品)



2002年~2011年

韓国で翻訳されている作品

人間失格 斜陽 ヴィヨンの妻 バンドラの匣 津軽
 走れメロス 晩年 正義と微笑 女の決闘 グッド・バイ

翻訳について

直訳が困難であった部分

私は遂に癡癡をおこし、お慶を蹴った。たしかに肩を蹴った筈なのに、お慶は右の頬をおさえ、がばと泣き伏し、泣き泣きいった。「**親にさえ顔を蹴られたことはない。**」一生おぼえておりますうめくよな口調で・・・

共感できた部分

「女中」という存在
 「女中」と「私」の関係

● 韓国でも
食母(シンモ)と呼ばれる女中がいた!

親にさえ顔を蹴られたことはなかったのに
부모님한테도 얼굴을 차인 적은 없었는데

韓国東亜日報1939年9月15日記事(「家庭」欄)



...お母さんが下人(ハイン)を軽蔑するから、子供たちも、自分よりずっと年上の「食母(シンモ)」を叱ったりいじめたりすることがあります。.....

...すくなくとも、自分の家に雇われて報酬をあげて仕事をさせるとしても、同じ人間として接するべきです。

...「食母(シンモ)」が主人の親切を無視し、行儀が悪くなると、追い出してしまうたら済むことですが、自分の子供の行儀が悪くなれば、この問題はどうやって解決できるでしょうか。「食母(シンモ)」の行儀を気にする前に、自分の子供が、人を軽蔑する習慣を身に着けないように育てましょう。